

한없이 다심한 손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6년 11월 삼지연 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학생소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체육관에도 들리시었다.

체육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실내온도가 낮으면 운동하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체육관의 실내온도는 15℃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체육관바닥을 또다시 화제에 올리시면서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상할 수 있다고, 고무 깔판을 보내 주겠으니 체육관바닥에 깔아주어야 하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체육관 실내온도와 바닥의 고무 깔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이라시며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그것은 스쳐지날 수 없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들이었다.